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 활동 보도

2012년 4월 13일
(금요일)

시사프리신문 7면

강북구,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나무심기'



이날 박경수 구청장을 비롯해 유균성 강북구청장, 서울시의원, 강북구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직원 및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43평의 입야에 남산 소나무 7년생과 4년생 700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동력인 산림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구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마을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고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

획에 의해 추진됐다. 이어 재작년 여름 태풍인 콘파스의 영향으로 강북의 산림이 훼손돼 수목이 부족한 미아동 오동근린공원 내 산 25-1번지 일대(약 2,800㎡)에 소나무를 식재해 사람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오동근린공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동부푸른도시사업소에 수목(200주)을 유상공급 요청하고 산림조합에 수목(500주)을 구매해 수목식재 대상지 준비를 완료하는 등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박경수 구청장은 "의약인단체와 함께 소나무 뿌리 보호운동을 위해 매달 1번 북한산을 찾는다"며 "소나무를 살리고 자연을 아름답게 꾸며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심는다는 심정으로 식목을 해 여러분의 숲과 공원으로 만들자"고 전했다.

유균성 의장은 "50%이상의 녹지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강북구는 탄소가 가장 낮은 지역이며, 앞으로 700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녹색 에너지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며 주민들에게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작업준비를 시작으로 행사안내 및 작업요령 설명, 나무심기작업, 물주기 및 뒷정리 순으로 3시간동안 진행됐다. 유영일기자

시사프리신문 4면

강북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개최

'13일부터~23일까지' 11일간 일정 소화

강북구의회(의장 유균성)가 오는 13일부터~2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159회 임시회 회기를 개최한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 선)는 '제159회 서울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서울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2012년도 서울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2012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제159회 임시회에서는 박

성열, 유균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성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된 이번 안건은 오는 13일 금요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유영일기자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주차관련 제도개선 사항 건의

‘주민 중심 행정의 주차 불만-ZERO 심의위원회 운영 필요’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이 주차 불만-ZERO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 개선안을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건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문수 의원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 건의한 고객 불만-ZERO 심의위원회는 주차분야 주민의 불만사항과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중심에서 민원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어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주차사업 분야의 주요 민원으로 주차구획의 신설과 삭신, 부정주차에 대한 이의

신청, 미납요금·가산금 부과 등이며, 특히 각종 민원에 대한 주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의 있어서 외부인사가 다수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해당 부서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불만-ZERO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차분야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편리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문수 의원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주차여건이 열악한 강북구에서 주차관련 민원은 공정하게 처리돼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 시행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차민원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영일기자

‘경로당어르신 기초건강검진에 인근거주 어르신도 참여 가능’



구본승 강북구의원

강북구의회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 송중, 번3동)이 지난해 11월 초순, 강북구의회 제155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경로당 인근거주 어르신의 경로당 어르신 기초건강검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개선·제기가 올해부터 이행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본승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경로당어르신 기초건강검진 서비스가 인근거주 어르신들에게 적극 홍보되지 못해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근 거주 어르신의 참여홍보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소장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바 있다.

그 후 올해 2월부터 ‘2012년 경로당어르신 기초건강검진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강북구 소식지 등에 ‘경로당 인근거주 어르신 참여’ 홍보 문구가 반영되지 못한 점과 구정답변사항이 적극 이행되지 못한 점을 구본승 의원이 재차 질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앞으로 소식지 등에 인근거주 어르신 참여 문구를 기재하겠으며 공공의료기관에 안내문 부착, 보건소 홈페이지 매월 일정 게시, 동주민센터 공문발송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부착, 동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자료 활용, 아파트 안내발송 실시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구본승 의원은 “부족한 인력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기초건강검진서비스를 진행하는 보건소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찾아가는 어르신 기초건강검진사업이 어르신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유영일기자